

‘제5차 우주개발 진흥전략 심포지엄’ 개최

- 우리나라의 달 탐사 타당성·전략 논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8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제5차 우주개발 진흥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나라는 2007년 1월 수립된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에서 2020년에 우리발사체를 이용하여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우주탐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나라는 NASA가 주도하는 ‘국제 달탐사 네트워크(ILN)’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최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를 한 과학재단 장영근 우주단장은 “달 탐사는 국내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높



이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 산업화와 기술 파급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박사는 “달 탐사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지구 중심의 위성개발 기술과 함께 우주과학을 진흥시키며, 국내 우주관련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국제 달 탐사 네트워크’ 사업 참여와 우리나라의 달 탐사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화석곤충, 신종 갈르와벌레 발견

-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에서 처음 확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2005년 3월부터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모니터링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오대산갈르와벌레에 대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식 현황 및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그 결과를 SCI 국제학술저널인 ‘동물과학’에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갈르와벌레는 캄브리아 후기 유존동물로서 살아있는 화석곤충으로 불리고 있으며, 빙하기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은 생물이다. 이 곤충의 주요 서식처로는 북미 및 동아시아대륙 북반부이며, 고산성, 고산시대 수목대 한계, 설원표면, 빙하지대 늪부근, 전석지나 썩은 고목나무숲, 낙엽 밑 등이다.

이 곤충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8종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는 석회암 동굴(한국 동굴의 평균 온도는 15도 정도)에 적응한 개체들이 다수로서 6종이 보고되어 있다. 남한에는 고수갈르와벌레, 동대갈르와벌레, 비룡갈르와벌레, 오대산갈르와벌레(신칭) 등 4종, 북한에는 묘향산갈르와벌레, 백두산갈르와벌레 등 2종이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다른 갈르와벌레가 주로 동굴이나 늪 지



역에서 서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오대산국립공원의 상원사, 월정사(유충) 도로변 숲에서 발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신종 발견으로 오대산국립공원은 숲 생태계의 건강성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종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동굴환경에 적응해 온 원시적이고 희귀한 곤충인 갈르와벌레가 도로변에서 발견됨으로써 관련 학계에 곤충의 진화과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갈르와벌레를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등록하기 위한 논문 등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2008 한·미 울트라 프로그램’ 개최

- 전기·전자, 에너지 분야 등 발전방향 논의 -



올해로 15회를 맞는 ‘울트라 프로그램’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회원단체인 10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 개최를 통해 국제

학술회의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과총이 주관한 ‘2008 울트라 프로그램’은 UKC(한·미 학술회의, 미국 샌디에고, 8.14~17), EKC(한·유럽 학술회의, 독일 하이델베르크, 8.28~31)와 연계해 전기전자, 에너지 분야에서 산학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울트라 프로그램’은 향후 JKC(한·일 학술회의, 일본 동경,

10.22~26)와 연계해 재료,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8월 15일 미국에서 김우식 울트라프로그램 자문위원장 진행으로 개최한 ‘제15회 울트라프로그램’에는 미 위스콘신대 임창범 교수(전기·전자)와 임흥근 미시건대 교수(에너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한·미 울트라 프로그램에는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직접 참석해 양국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공 사례, 경험, 노하우, 주요 과학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울트라 프로그램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는 우수 한인 과학기술자와 국내 과학기술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차례 개최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김정은 박사와 공동 연구로 AIDS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총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과학자와 연계한 울트라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내년에도 분야를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자 세계적 논문게재 실적 증가

- NSC저널 게재 정규논문 지난 15년간 6배 증가 -

한국인 과학자들의 NSC(네이처, 사이언스, 셀)저널 게재 정규논문이 지난 15년 간 6배 증가하고, 논문 점유율도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NSC저널 논문게재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재단이 발간한 ‘주요 과학저널에 게재된 한국과학자 논문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과학자들의 NSC저널 게재 정규논문은 1993년 4편에서 2007년 24편으로 6배가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2003년 0.6%에서 2007년 1.2%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논문게재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과학자가 NSC저널에 게재된 정규논문은 총 100편이며, 이들 논문 중 정부지원 연구결과임을 밝힌 총 66편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성과는 58편(정부지원 성과의 8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3년 간 86개 주요 과학저널에 게재된 한국인 논문 2천615편 중 1천254편(48.0%)이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사선과 함께하는 행복한 이야기 사례 공모

- 9월 22일~10월 2일, 사진 및 UCC 체험수기 공모 -

한국과학재단은 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방사선의 유용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사선 체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접수와 공모전 행사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공모는 ▲사진 및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체험수기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학재단은 심층적인 작품심사를 통해 총 16명을 선정,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여한다. 사진 및 UCC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방사선의 유익한 이야기를 주제로 시행되며 일상생활에 쓰이는 방사선 기술을 매개로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친근한 방사선기술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문의 : 한국과학재단 방사선팀 042-869-7756).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3개 연구원 신입원장 취임



박영훈 신입원장



박영서 신입원장



김기욱 신입원장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유희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에 박영훈 박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에 박영서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장에 김기욱 박사를 선임하고 지난 8월 20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훈 원장(57)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생명공학연구소 선임연구부장을 거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했다.

박영서 원장(52)은 아주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산업기술정보원 부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업단장을 지냈다.

김기욱 원장(53)은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후 동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남부한의원 원장을 지냈다.

이번 인사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새 정부의 재신임과정에서 공식이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3개 기관 신입 원장의 임기는 8월 20일부터 앞으로 3년 간이다.

제 3기 '과학기술 지원단' 27명 선발

- 개도국 파견돼 기술교육, 컨설팅 등 과학기술 지도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사장 임천일)은 제3기 '과학기술 지원단(TPC)' 27명을 선발하여 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에 파견한다. TPC 단원 선발 및 파견은 개도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제화 능력 배양과 다양한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사우디, 튀니지 등의 중동국가와 카자흐스탄, 마이크로네시아 등 광물 및 해양자원 개발전망이 큰 지역을 파견대상 지역에 포함하였으며, TPC 사업은 단원 파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협력 외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다.

선발된 단원에 대해서는 월정 체제비, 특수지 근무수당, 여행경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파견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단원들은 개도국 내의 파견기관에서 기술교육, 컨설팅 등 과학기술 지도 업무와 주재국-한국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문의 :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02-6710-7425).

학회 소식

학회명	행사명	기간	개최장소	연락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식품산업용 화학물질의 유익성과 위해성	9. 5	식약청 대강당	02-566-0417
한국소성기공학회	제9회 국제소성기공학술회의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9. 7~11	경주 현대호텔	02-501-4338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2	008 광해방지 국제심포지엄	9. 18~19	강원랜드	02-566-8744
한국정보보호학회	국제 정보보호 응용 워크숍(WISA2008)	9. 23~ 25	제주 신라호텔	02-564-9333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2008 친환경 자동차해체 및 리사이클링 기술 국제심포지엄	9. 25~26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	02-3453-3541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	Stem Cells; from Basics to Application 연수강좌	9. 5 / 27	서울아산병원 대강당 / 부산대학교 대강당	02-565-162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9. 5~6	그랜드 힐튼호텔(홍제동)	02-3275-5330